

## SK종합화학-코오롱인더스트리, 친환경 생태계 구축 속도

## 고품질 PBAT 3분기 출시... 2023년 年 5만톤 이상 생산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양사 플라스틱 제조공정기술 결집 공동 연구개발 1년만에 제품 상용화 플라스틱 순환체계 공동 완성 계획

SK종합화학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협업을 올해 3분기 '잘 썩는'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인 PBAT를 출시한다.

SK종합화학은 7일 PBAT가 자연에서 산소, 열, 빛과 효소 반응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밝혔다. 통상 플라스틱 제품은 자연분해되는데 100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PBAT 제품은 매립 시 6개월 이내 자연 분해되는 높은 친환경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특성으로 최근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와 SK종합화학은 각자 오랜 기간 쌓아온 플라스틱 제품



연구원들이 SK종합화학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공동개발한 PBAT 제품의 물성을 측정하고 있다.

제조 공정기술을 결집해 올해 3분기 내 고품질의 PBAT 제품을 정식 출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PBAT제품의 생분해성 인증 및 국내외 특허출원,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국내 최고 수준의 나일론 및 폴리에스테르계 제품 생

산기술에 기초한 PBAT 생산 기술 및 설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SK종합화학은 국내 유일의 PBAT 주원료 생산·공급 업체로서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동안 축적한 친환경 패키징 소재 분야 기술을 접목해 높은 품질의 PBAT 제품 생산기술을 더욱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즉 코오롱인더스트리가 SK종합화학으로부터 제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PBAT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최적의 온도, 소재 혼합 비율 등 SK종합화학의 노하우를 더해 고품질의 PBAT제품을 만들어 내기로 한 것이다.

이날 SK종합화학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서울 종로구 소재 SK서린빌딩에서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사업화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지난해부터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개발에 협력해 온 양사가 공동의 연구개발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제품 상용화 단계를 앞두고 있다.

양사는 오는 2023년까지 PBAT 생산 규모를 국내 최대 규모인 연산 5만톤 이상 확보해 폐플라스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생분해 제품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장희구 대표이사는 "친환경 플라스틱 생태계 구축에 양사 간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며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환경을 배려한 지속가능한 소재 개발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와 SK종합화학은 지속적으로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해 리사이클 제품을 생산하는 비즈니스 협력 모델 또한 추진함으로써 플라스틱 순환체계를 공동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은 "SK종합화학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공동 협력을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에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플라스틱 순환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네이버, 인니 미디어기업 '엠텍' 1678억 투자

장기적 동남아 지역 성장기회 발굴 미디어 등 다양한 플랫폼 시너지 기대

네이버가 인도네시아 최대의 종합 미디어 기업 엘랑 마코타 테크놀로지(이하 엠텍(Emtek))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네이버는 현지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엠텍에 1억 5000만 달러(1678억원)를 투자, 엠텍을 새로운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 맞이하게 됐다. 4월 7일 기준 시가총액 103억 달러, 인도네시아 9위 기업인 엠텍은 1983년 설립 이후 현재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종합 미디어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엠텍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비디오(Vidio)'를 비롯해, 전국 1, 2위의 공중파 채널과 지역 공중파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 미디어·엔터테인먼트·콘텐츠 사업 외에도 간편결제, 커머스, 클라우드와 같은 IT솔루션 등 테크 기반에 주력한 사업영역에서 탄탄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웹툰을 비롯한 콘텐츠 분야와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글로벌 사업을 성장시켜가고 있는 네이버와 많은 접점이 있다.

이에 따라 양사는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서, 각 사의 강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협업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IP 경쟁력을 갖춘 웹툰 기반 콘텐츠가 엠텍의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현지 사용자들과 만나거나, 클라우드 분야에서의 협력도 가능하다.

네이버도 그간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춰왔다. 라인웹툰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구글플레이 기준 만화 카테고리 수익 1위를 차지하고 있고, Z홀딩스와 경영통합을 마친 라인 역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서 8100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정안 네이버 책임리더는 "엠텍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커머스, 콘텐츠, 클라우드 등 네이버가 글로벌 확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중심으로 동남아 파트너들과 접점을 찾고, 다양한 기회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 LG전자, 고효율 태양광 모듈 '네온 H' 출시

모듈 효율 21.2%, 출력 390W 달해

LG전자가 글로벌 태양광 시장 공략을 위해 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새로 내놨다.

LG전자는 네온 H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모듈 효율이 21.2%로, 출력은 업계 최고 수준 390W에 달한다.

LG전자는 N타입 셀을 적용해 네온 H를 만들었다. P타입에 비해 공정 난이도가 높지만, 효율이 높아 프리미엄 태양광 모듈에 주로 사용된다. 셀 구조가 전면뿐 아니라 후면에서도 빛을 받아들이는 '양면발전' 구조로 발전량도 늘렸다. 기온 증가에 따른 발전 효율 변화도 -0.33%/℃로 P타입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셀 1장을 2개로 분할해 연결하는 '하프컷' 기술도 적용해 효율을 높였다. 셀



LG전자 네온 H.

/LG전자

을 나눠서 사용해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력 손실을 줄여준다.

내구성도 높다. 25년까지 초기 출력 90.6% 발전 성능을 무상 보증해준다.

출시는 이달 초부터 국내와 미국, 독일, 프랑스와 영국 등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국내 시장에는 특성에 맞춰 출력을 450W로 높이고 모듈 효율 20.5%를 구현했다.

/김재용 기자

## HMM 초대형 컨테이너선 '누리호' 만선 출항

선적량 1만3438TEU 기록, 유럽 운항

HMM(구 현대상선)의 초대형 컨테이너 1호선 'HMM누리호(Nuri)'가 컨테이너를 가득 채운 만선으로 유럽을 향해 출항했다.

7일 HMM에 따르면 'HMM누리호'는 전남 싱가포르에서 유럽으로 출항했다. 'HMM누리호'는 지난달 22일 부산항에서 첫 출항해 중국상해, 닝보, 옌텐을 거쳐 지난 5일 싱가포르에 입항했다.

'HMM누리호'는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의 통상 최대 선적량인 1만 3300TEU를 넘는 1만3438TEU를 기록, 만선으로 유럽으로 출항했다.

HMM은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건조된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을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인수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화물의 적기 운송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HMM 누리호'와 'HMM 가온호' 2척을 조기 투입했다.

이 선박들은 북구주 항로 FE4(Far East Europe4)에 투입돼 디얼라이언스(The Alliance) 멤버사들과 함께 공동 운항을 하고 있다.

기항지는 부산-상하이-닝보-옌텐-싱가포르-로테르담-함부르크-엔트워프-사우샘프턴-수에즈-옌텐-홍콩-상하이-부산 순이다.

HMM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인도 받은 총 20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으로 HMM의 서비스 경쟁력은 한층 강화됐다"며 "강화된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1만6,000TEU급 컨테이너 1호선 'HMM 누리호'가 싱가포르에서 화물을 가득 채우고 유럽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로 한국 해운 재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아시아-유럽 노선에 투입된 HMM의 2만4000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은 32항차 연속 만선이라는 대기록을 남겼다. 33항차에 99% 선적을 기록했지만, 34항차부터 최근 37항차까지 또 다시 만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아시아나, 'A380 무착륙 관광비행' 새 단장

각국 관광청 협력 국제여행 콘셉트 강화 4월 스페인 전통무용 '플라멩코' 공연

아시아나항공 'A380 무착륙 관광비행'이 여행의 감동을 되살려 새롭게 단장한다.

아시아나는 7일 해외로 떠난다는 여행의 느낌을 더 살리기 위해 각국 관광청과 협력해 스페인, 호주, 대만 등 국제 여행 컨셉을 살린 관광비행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로 4월에 세 차례(11일, 17일, 25일) 예정된 A380 무착륙 관광비행은 '다시 만나는 스페인'을 컨셉으로 진행한다. 스페인은 '가우디의 도시', '건축의 도시', '스페인 축구의 성지' 등으로 불리는 바르셀로나가 대표적 관광 도시이며 한국 관광객에게도 많은 사랑

을 받는 여행지다.

4월 비행에는 인천국제공항 탑승 게이트에서 스페인 국왕 훈장을 수훈한 '톨라 플라멩코'가 스페인 전통무용인 플라멩코 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스페인 관광청에서 선착순으로 로고백, 수첩 등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준비했다. 기내에서는 스페인 관광청 이은진 한국 대표가 스페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탑승객 전원에게는 목시팡 어메니티 키트와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IF E) 서비스가 제공되고, 마일리지도 적립된다. 또한 비즈니스 스위트와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은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다.

/김수지 기자